

2022. 11. 14(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2년 11월 14일 오전 10:2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정종대	2133-7039
주택시장분석팀장	박현정	2133-7049
담당자	정효진	2133-7007
관련 누리집	housing.seoul.go.kr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5매

서울시 한국해비타트·대우건설 주거약자 주거환경 개선 위해 손 맞잡는다

- 11.14(월) 한국해비타트·대우건설과 주거안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업무협약
- 서울시: 대상 발굴·지원, 한국해비타트: 맞춤형 집수리, 대우건설: 사업비 후원
- 주거약자 '안전·건강·쾌적한 생활' 위해 재난예방시설, 주택성능 및 실내환경 개선
- 중증장애인 거주 반지하주택 2곳(북아현동 화곡동) 시작으로 지원가구 계속 확대
- 시 "주거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민·관 협력 확대로 주거약자와의 동행 지속 실천"

서대문구 북아현동 반지하에 사는 신지은(가명) 씨는 올해 8월 폭우로 집이 물에 잠겼다. 불행 중 다행으로 물이 발목 정도 차는데 그쳤지만 마룻바닥은 석 달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젖어있어 하루 서너 번 양말을 갈아신는 건 예사고, 썩은 바닥에 누울 수 없어 소파에 쪼그려 잠을 잔 지도 오래다. 원래 장판과 벽지 색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집안 전체에 곰팡이가 퍼져 계단을 내딛는 순간부터 코를 찌르는 냄새를 없애보려고 방향제를 대신해 24시간 모기향을 피우고 있다. 젖은 이불과 가재도구로 제대로 된 잠도, 식사도 할 수 없다. 부모님은 거동이 불편해 일을 나가지 못하고 지적장애 3급인 지은 씨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다니고 있지만 몇 달째 공과금도 내지 못하고 있어 집수리나 정리는커녕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절망스럽다.

정진욱(가명) 씨는 청각·지체장애를 가진 아내와 함께 강서구 화곡동 반지하에 15년째 살고 있다. 뇌병변 장애를 가진 진욱씨는 거동에 불편이 없지만 아내는 양 다리 길이가 달라 가족이나 기구 도움 없이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다. 반지하 계단을 내려올 때에도 아내가 넘어질까 노심초사, 집에서는 높은 방문턱 때문에 실내용 휠체어를 타지 못하고 잠들기 전까지 보조기구를 착용하는 모습에 늘 마음이 쓰인다. 2019년 구청이 설치해 준 물막이판 덕분에 올해는 침수 피해를 피할 수 있었지만 폭우에 물이 차거나 불이라도 나면 아내와 함께 쉽게 대피할 수 있을까 늘 불안하다.

서울시가 이같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주거안전 취약계층을 위해 민간기업, 비영리단체(NGO)와 함께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주거약

자의 '안전'과 '건강', '쾌적한 생활'을 목표로 물막이판, 침수경보기 등 재난예방 시설을 최우선 설치하고 창호·단열·방수 등 주택성능 개선과 함께 도배·장판 교체, 곰팡이 제거 등 가구별 맞춤형 집수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탈바꿈시켜줄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서울시는 11.14(월) 서울시청에서 한국해비타트, 대우건설과 '주거안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 협약식은 10:20~10:40 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윤형주 한국해비타트 이사장, 정원주 대우건설 부회장이 참석한다.

- 최근 기업이 ESG 경영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집수리, 도시 숲 조성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주거안전 취약계층을 위해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모색해 왔으며, 이번에 한국해비타트와 대우건설의 참여로 첫 민·관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 ESG(Environment · Social · Governance) 경영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을 고려하는 경영으로 최근 기업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와 소통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으로 ESG를 실천하고 있다.

- 이번 협약에는 ▲반지하주택 등 주거안전 취약가구 발굴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맞춤형 개선 ▲민·관 협력사업 확산을 위한 참여기관의 사회공헌활동 홍보 등을 위한 각 기관 간 공동협력 방안이 담겨있다.

- '서울시'는 반지하주택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지원대상 발굴 및 추천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맡고,
 - '대우건설'은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 후원과 함께 임직원 봉사활동 참여에 적극 나설 예정으로 올해 시범사업에 투입될 2억 원을 후원키로 했다.
 - 또한 대한민국 대표 주거개선 비영리단체인 '한국해비타트'는 30여 년의 집수리 노하우를 살려 가구별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한다.
- 서울시는 협약에 앞서 지난달 첫 민·관 협력사업을 진행할 반지하주택 두 가구를 시범 선정, 이들 가구의 환경개선을 위해 현장 조사·거주자 면담 등을 진행해 왔으며 본격적인 동절기가 시작되기 전인 내달 초 입주를 목표로 작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두 가구를 시작으로 지원가구를 지속 발굴하여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대상 선정은 지난 9월 시가 진행한 중증장애인 거주 반지하주택 370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침수피해 신청가구, 침수위험 등급이 높은 가구 등을 먼저 추려낸 다음 거주자 면담과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 시범사업 대상인 북아현동(서대문구), 화곡동(강서구) 반지하주택은 실태조사한 가구 중에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곳으로, 빗물 유입을 막을 외부 물막이턱과 침수·화재경보기 설치로 거주자 안전을 강화한다. 또 창호·단열·방수 작업을 진행하고 곰팡이로 가득한 벽지와 장판, 싱크대 등을 교체한다.
 - 특히 지체장애인이 사는 화곡동의 경우에는 실내에서 휠체어 이용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제거, 욕실 손잡이 설치 등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서대문구 북아현동 반지하



강서구 화곡동 반지하

- 서울시는 앞으로 민·관 협력사업 추진 시 반지하주택 특성을 고려하여 침수, 화재 등 재난 위험뿐 아니라 환기, 위생, 채광 등 주거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반적인 주택 성능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반지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중증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아동 양육 가구 등 주거약자를 지속 발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참여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약자를 돕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에 공감하고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신 대우건설, 한국해비타트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긴밀한 협업 관계를 유지, 주거환경 개선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제2, 제3의 대우건설, 한국해비타트를 적극 발굴하여 주거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